

완도 '해양치유 관광시대' 포문 열었다

관광산업 활성화 비전 선포식
대한민국 건강한 삶 선도 다짐
여행 기업·단체와 업무 협약도



완도군이 신우철 군수와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유튜브, 국내외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다짐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해양치유 관광시대 포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최근 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블로거, 유튜브, 여행 작가, 국내외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완도관광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신우철 군수의 '완도 관광' 프레젠테이션, 명예 홍보 대사 위촉,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기업·단체와 업무 협약, 관광 활성화 다짐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청정 바다와 푸른 숲 등 완도의 자연환경과 세계가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등 지속 가능한 완도 관광, 힐링이 필요할 때 완도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게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은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5명을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매체를 통해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브라질 국적 줄리아씨는 "매력적인 완도군의 관광 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포식에 참석한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와 국내 여행사 대표 등은 2박 3일 동안 완도에 머무르면서 해양치유와 관광, 맛과 멋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군은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기업·단체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는 한국중소여행사연합회(회장 합수일), 한국스마트관광협회(협회장 김바다), 진주관광협의회(회장 박현길), 이부커스코리아(대표 박중운), 풍경있는여행(대표 한지환)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단체에서는 해양치유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군은 여행 상품 운영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 조직인 '완도섬관광청'은 친절도 및 관광 수용 태세 개선으로 완도 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8일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과 제62회 전남제전 및 제31회 전남장애인제전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컬러 빵튀기 '천사빵' 출시

시금치빵·퍼플빵·함초빵 등 4종



컬러빵튀기 '천사빵'.

신안군이 컬러누룽지, 컬러식혜에 이어 세번째 컬러푸드 '천사빵'을 관광지와 농협마트를 통해 판매한다.

컬러빵튀기 '천사빵'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기존 제품과 같이 신안쌀을 주재료로 지역특산물인 시금치, 단호박, 자색고구마, 함초 등을 넣어 다채로운 색깔로 출시됐다.

초록빛의 시금치를 넣은 '시금치빵'과 보랏빛의 자색고구마를 첨가해 만든 '퍼플빵', 노란빛의 단호박을 넣어 만든 '단호박빵', 짙은 갈색의 함초를 넣어 만든 '함초빵' 등 4종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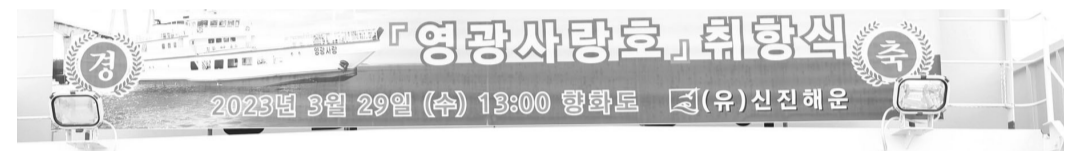
특히 인공색소를 쓰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천일염 등 천연재료만 사용해 쌀의 고소함과 맛의 밸런스를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 간식으로 즐기길 좋다.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는 첫 번째 상품인 누룽지 섭취를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두 번째 상품인 컬러식혜도 생산되는 대로 완판돼 새로운 컬러 시리즈를 기획했다.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영체인 맛잇섬영농조합법인은 생산은 물론 품질 연이은 지역 축제장에서 신안 농특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홍보·판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빵의 출시를 지역색을 살린 가공품 개발로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삼호重, 업계 최초 '페스티로폼 활용' 재생원료 생산

"ESG 경영·자원 재순환 생태계 조성"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회사 내 폐기물 선별·보관장에서 신현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스티로폼 재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페스티로폼 활용 재생원료를 생산함으로써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회사 야드 내 폐기물 선별·보관장에서 신현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스티로폼 재활용 시연회'를 개최하고, 지난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원료 생산을 가동했다.

스티로폼은 선박의 주요 기자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파손을 막기 위한 완충재 역할로 활용된다. 이후 발생한 페스티로폼은 위탁업체에 의뢰해 소각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미세플라스틱, 탄소 등 온실가스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페스티로폼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을 추진,

허가를 마쳤다.

앞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페스티로폼을 감용기를 통해 압축하고 녹인 후 균제 재생원료인 '잉곳(Ingot)'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잉곳은 추가 공정을 거쳐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원료로 재활용되며, 매각 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폐비닐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등은 파쇄,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연탄의 대체 연료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률 향상을 통해 ESG 평가지표를 제고하고 자원 재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 재순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 실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 향화도~송이도 뱃길 편해진다

184인승 최신 여객선 취항

어려워 송이도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다. 신형 여객선 영광사랑호는 무엇보다도 접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아름다운 섬 '송이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된 송이도는 조약돌이 1km 넘게 펼쳐진 몽돌해수욕장과 기암괴석, 왕소사나루 군락지가 유명하다.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품고 있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의 아름다운 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사랑호가 더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통해서 힐링의 섬 송이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고, 이를 통해 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향화도와 송이도를 편안하게 이어줄 신규 여객선 '영광사랑호'가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염산면 향화도항 영광사랑호에서 강종만 영광군수와 도·군의원, 여객선사,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사랑호 운항을 축하하고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취항식을 개최했다.

<사진>
(유)신진해운이 취항한 영광사랑호는 승객 184명과 차량 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167t 규모의 최신 여객선이다.

최대속력은 13.5노트이며, 향화도에서 송이도 구간을 1일 2항차 운항한다. 편도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그간 운항해왔던 여객선은 조류가 강하고 항만 시설이 열악한 향화·송이 항로에 안전한 접안이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